

## 우리는 모두 무한능력자

박 찬 역(대산, 의식탐사연구원 대표))

끼고 있던 흰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잣빛가루를 쥐어 산자락에 조금씩 흩뿌렸다. 처음에 따뜻하게 느껴지던 기운이 손끝으로부터 따갑게 퍼져오면서 가슴이 저며왔다. 여기 저기에서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둘러서 있다. 늘상 그리워 하시던 정읍의 야산자락에 뿌리라도 내리시려나? 이제 당신은 새로운 차원의 여행을 하시면서 이곳 우리를 곁에 커다란 발자국을 남기셨나이다. 며칠전 까지만 해도 당신은 이 땅이 아닌 저곳(?)을 향하고, 가리키고, 얘기 하면서 살아오셨지요. 문득 '삶과 죽음을 아무런 차이도 없고 오로지 호흡하는 차이가 있을 뿐' 이라고 하시면서 철없이 울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열을 했군요. 이제 울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보니 당신의 손길로 태어난 많은 책들은 땅에서의 얘기가 아닌 언제나 당신이 가신 그곳(?)얘기 뿐이군요. 그런데도 늘상 시작은 '여기, 이 자리에서 해야 된다.' 고 하셨지요. 또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니까' 한다고 하셨지요. 그 누군가는 모두 당신 자신이셨기에 사명감 하나뿐인 외로운 전령사의 삶이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주위에 서성이던 우리들 중 대다수는 '지금여기'가 아닌 엉뚱한 쪽을 응시하곤 했었지요. 가끔씩 당신께선 성큼성큼 앞으로 나가서서는 따라와 보라고 손짓도 하셨기에 '총통'이란 별칭도 붙었지요. 그럴 때 마다 우리는 당신이 계신곳으로 가봤지만 당신은 벌써 저만큼 앞에 서 계셨지요. 그렇게 그렇게 우리는 뒤따라 왔건만 이제야 당신의 발자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조금은 눈치가 채어 집니다. 함께 해주셨던 수많은 시간의 선물동안 당신의 크나큰 그들은 생각조차 못했던 우둔함이 이제야 부끄럽습니다.

당신께서 정신세계 전반에 남기신 놀라운 자취와 높여주신 의식의 명확함을 절실하게 느껴 봅니다.

70년대 중반부터 '생명의 실상'을 필두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은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1978년에 흰칠하듯 크신 노신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젊은 동지를 만나서 참으로 고맙다'고 하셨지요. 그때의 굳은 악수와 '동지'라는 낱말은 제 삶에 변혁을 몰고 왔지요. 밤낮없이 퍼붓듯 마셔대던 술통 시절에 '동지'라구요? 신(神)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억지를 부리던 저에게 조용히 웃으시면서 멋진 친구(?)라고 용기(?)를 주시는 바람에 술잔을 버리게 되었지요. 사실 당신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땐 저도 도인(?)될 결심을 했었지요. 그리고는 갑작스레 변해서 주위사람들은 저를 정신나간 놈으로 취급을 하더군요. 완전히 돌았다고(사실은 제자리에 온건데) 친구들은 아예 상대를 앓더군요. 그시절 당신의 배려로 감로의 범우를 정성스레 읽고 신상관(神想觀)을 하면서 나도 깨달음을 얻겠다고 수행을 했지요. 수행이 아니라 정말 처절하리만큼 투쟁처럼 깨달음이 오기를 몸부림 쳤지요. 그때마다 당신은 '조금만 여유를 가지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저는 아니다(?)하면서 더 지독히 한달도 하고, 석달이 넘는 단식수행을 하고 났을 때 '주위를 돌아보는 여유정도는 있어야 도(道)가 닦아지지 않을까?' 하셨지요. 그때 조금은 정신이 났습니다. 모질고 고집스런 수행은 그후 치워버렸습니다. 그후 저는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생명의 실상모임을 가졌고 당신께서는 이따금씩 독려도 하셨지요. 그리고도 여기저기 많은 곳을 동행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지요. 수많은 시간들 중에도 1983년 구미 새마을 연수원에서의 교육은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그냥 어떤 회사의 종업원 300명 정도를 교육해 달라는데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고 하시길래 쉽게 생각 했더랬습니다. 기간은 6박7일 두조로 나누어서 각각 3박 4일 일정이었지요. 현장에 도착해 보니 다른 강사는 없으니 둘이서 하루 8시간만 교육을

하면된다고 하셨을때 막막하기도 했고, 원망스럽기까지 했었지요. 못한다고 하기엔 너무 늦었구요. 또 제게 주신 체험담의 제목은 '당신은 무한 능력자' 였지요. 그때도 어김없이 '누군가는 해야할일 아닌가!'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생명의 실상 이론 강의는 당신께서 하시고 체험담은 제가 맡아서 첫날 8시간을 무사히 마쳤었지요. 느긋하게 늦저녁을 마친 뒤 '누군가 개별상담을 원한다며 잠깐 만나보지 않겠느냐? 고 하시길래 겁도 없이 시작한 것이 교육기간 내내 상담할 사람들이 몰려와서 밤새워 상담했던 일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없이 6박7일의 교육일정을 끝냈을때 정말 아무생각도 없었습니다. 강당을 나와 운동장에 나섰을 때 부등켜 안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려주던 교육생들에 무척이나 놀랐던 기억도 납니다. 어쨌던 교육의 성과는 몰라도 그 열기는 대단했었지요.

교육이 끝난 운동장에서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우루루 몰려들어 강사를 끌어 안고 고마워 한 것은 아마 지금까지의 어떤 교육에서도 흔치 않았을 겁니다. 당신의 무모함(?)도 놀라웠지만 기쁨도 못지 않았었지요. 그 교육후 저항에서 풀려난 많은 수의 사람들은 병증세가 사라졌다고 기뻐했지만 그곳에 근무하던 그 곳 사장님의 난처해하던 딱한 면도 있었지요. 그 결혼한다는 사람들이 당신께는 물론이고 삼십대 중반이던 저에게도 끈덕지게 주례를 부탁을 해와서 정말 안스럽고 난감했던 것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돌이켜 보면 20년이 넘게 당신을 가까이서 대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취산, 당신께서는 형체가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물질의 풍요만을 꿈꾸던 70년대의 정신의 황폐시대에 갈 곳을 몰라 헤메이던 수 많은 사람들에게 의식을 일깨워 주신 등대불 같은 존재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금세기 말 새로운 차원으로 가시기전 몇 년동안은 정말로 멋지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가없는 의식에 닿을 수 있게 하신 우리시대의 이끌어 주신 놀라운 화신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행운이자 당신과 함께한 놀라운 창조이기도 하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제 다시 한번 함께 해 주셨던 모든 시간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새로운 차원의 시작을 축원하옵니다.

동지여! 고맙습니다.

1999년 9월 대산 박 찬 역 드림